

# 시장 인근 도로 주정차 단속 체계 변경

진안군, 쌍다리~시외버스터미널 구간… 홍보·계도기간 후 내년부터 본격 단속

진안군이 진안고원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 단속 체계 변경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와 군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쌍다리~시외버스터미널 구간까지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10월 중 완료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변경하게 된다.

군은 구간 내 차선을 흰색 실선과 황색실선(복선)으로 도색하고, 고정형

CCTV(무인단속)을 통해 △흰색 실선 20분 초과 시 △황색실선(복선) 주·정차 즉시 단속대상으로 삼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진안군은 단속 체계 변경사항 홍보와 함께 2022년 12월 31일 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 체계를 바탕으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 단속 시간은 08:30~18:00이며, 평일 점심시간(11:30~13:30), 휴일(명절 포함) 및 홍삼 축제 등 군

주요 행사 기간은 단속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은 “단속 기준 변경에 앞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권 활성화와 보행 안전, 상가 이용객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개선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와 함께 주·정차 단속 체계를 변경 시행하게 됐다”면서 “읍내 주차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안고원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또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의암주논개 제전·장수군민의 날 기념식 성료

군정발전 유공자·군민의 장 시상·의암주논개상 추대

장수군이 28일 한누리전당 일원에서 ‘탄신 제448주년 의암주논개 제전 및 제55회 장수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 장정복 군의회의장 및 군의원, 박용근 전북도



장수군이 28일 한누리전당 일원에서 ‘탄신 제448주년 의암주논개 제전 및 제55회 장수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 앞서 의암사 영정각에서 꽂디운 나이에 순절한 논개의 애국충절을 기리는 논개 제례봉행이 거행됐다.

## 무주군, 주요 도심 가을꽃 식재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

무주군이 가을을 맞아 관내 주요 화단에 국화꽃 약 3,000본을 식재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했다. 가을꽃 식재를 통해 시가지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화사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관내 주요 시가지인 남대천교와 U대

회기념교 사이 도로변에 가을의 정취가 물씬 나는 국화꽃을 심었다.

또 군청 현관과 청사 끝곳에 국화를 전시해 관광객과 군민이 ‘반딧불이가 살아있는 청정무주’에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수시로 꽃품질 확인과 사후관리로 시가지 경관

다.

이어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 발전과 향토문화발전에 앞장서 온 군 정발전 유공자 김재문(59세, 남)씨, 권하연(37세, 여)씨, 김정환(50세, 남)씨, 유진성(58세, 남)씨, 설윤환(69세, 남)씨와 군민의 장 수상자 애향장 이군형(60세, 남)씨, 효열장 정은숙(63세, 여)씨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의암주논개상(義巖朱論介像)으로 선정된 전정희(62세, 여)씨에 대한 추대식이 거행됐다.

또한 축하공연으로 논개충철무 공연, 진주 슬레이밴드팀 공연, 논개 시낭송 퍼포먼스, 초청가수 공연 등이 대체롭게 열려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 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논개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살기 좋은 장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논개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군민의 화합을 다지기 위하여 매년 읍력 9월 3일 주논개 탄신일을 기념해 의암 주논개 제전 및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에 기여할 계획이다.

무주군 천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 이경일 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과 관광객들이 가을 국화와 함께 재충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왕래가 잦은 곳에 계절별 특색 있는 화단과 꽃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무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역량 강화 위한 마을기술학교 운영

진안군, 군민 16명 대상 주택관리 기술교육 진행

진안군과 진안군마을기술지원센터가 농촌 생활에 필요한 2022년 마을 기술학교를 진행했다.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군민 16명을 대상으로 5회차 19시간에 걸쳐 진안군 마을기술지원센터 등에서 열린 이번 기술학교는 진안군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군에 따르면 고령화 등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농촌지역의 특성상 도시 지역에 비해 주택관리와 관련 서비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이에 주택관리를 위한 기본지식과 기술을 주민들이 배워서 직접 나의 주거공간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진



행하고 있으며 전기, 조작, 미장, 타일, 방수, 도색, 생활 집수리 등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교육한다.

특히 올해는 주택관리 기술교육 수료 후 시민 조직화를 통해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삼양동 마을관리소’ 협동조합의 사례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참석자들의 관심도가 더욱 올라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홍삼축제 대비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진안군은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경찰서, 진안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위원회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진안 홍삼축제’ 안전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전춘성 군수)를 개최했다.

분야별 안전관리위원회들은 축제 부서로부터 축제개요와 해재대처계획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안을 제출받고, 위원들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관광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10월 6일에는 소방서, 군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점검단을 구성해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과 보완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및 행사장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춘성 위원장(진안군수)은 “진안홍삼축제는 군 대표 축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큰 행사인 만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홍삼축제는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안고원 시장, 미이산 북부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진안군은 28일 진안군 산악초 타운에서 ‘2022년 진안군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7월 새롭게 위촉된 제6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들의 주민 참여예산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 전문위원이었던 김석 전 전문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식과 우수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